

# “발마사지 2천명...죽는 날까지 봉사할 것”

## 조계종자원봉사단 ‘정진회’ 팀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 수상

“15년 넘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발마사지를 했어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먼 곳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4~5년이 지나고나니 삶의 일부가 됐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부설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원경) 소속 봉사팀인 정진회가 9월 9일 ‘2013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용철·이제숙·장주선·김춘자·강부선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들은 1997년 간병자원봉사교육과 2001년 일반사양법자원봉사교육 수료 후 장애아동 및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5년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해 이어온 팀이다. 50대 중반에서 60대로 구성된 정진회는 매주 1회씩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 모여 봉사활동을 한다. 하루 동안 보통 10명 정도의 복지관 이용자들이 정진회팀의 도움을 받는다.

15년 동안 정진회팀의 손을 거쳐 간 수혜자들은 어렵잡아 2000여 명 정도다. 한



15년 넘게 장애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발마사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정진회 팀원들. 사진 왼쪽부터 장주선(61)·이제숙(59)·김춘자(60)·강부선(65) 씨(좌). 정진회는 9월 9일 ‘2013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맨 앞이 정진회 팀장 김용철(58) 씨(우).

명당 대개 30분 정도 걸리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만만치 않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경애(51·여)씨는 “하반신이 불편한데 3개월 동안 매주 1회 발마사지를 받으니 혈액순환도 되고 좋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좋다”며 “답례로 선물을 드려도 봉사자분들이 받을 수 없다며 사양한다.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서비스를 더 받고 싶지만 대가지가 많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정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발사랑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2년 정도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평장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9월 13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진회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강부선(65) 씨는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봉사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금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용철 정진회 팀장은 1998년 건강의 문제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 팀장은 “봉사를 통해 타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또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울점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며 “부서사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영담 스님께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처음이자 어렵지 4~5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다.

어떤 일을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일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진회 회원들은 ‘발마사지’ 봉사가 곧 수행이고 기쁨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는 계속 할 생각”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정진회는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난치병어린이지원 모금행사’에 매년 함께 동참하며, 적게는 7만원 많게는 30여 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강릉, 문산지역 등 국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봉사활동과 2005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해외 구호봉사, 2007년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활동에 앞장서서 적극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는 간병, 목욕, 발마사지 등의 노력 봉사활동을 꾸준히 개하며, 일회성·이벤트성 봉사활동이 아닌 연한 요즘,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 기자

## 복지·나눔 소식

### 홍천군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원경)은 9월 11일 홍천읍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 장애인·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실시됐다.

이날 지역복지팀 직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홍천읍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단지 배포하여 지역장애인의 현 주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장애인식 캠페인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 기자

###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작품전시회

9월 27일까지, 서울 메트로 미술관서 100여점 선보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판)은 9월 23~27일까지 서울 혜화역 메트로 미술관에서 ‘어르신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글서예, 동양화, 수채화, 유화, 디지털카메라 등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솜씨와 열정이 담긴 작품 100여점이 선보여진다.

관장 정판 스님은 “1년 동안 갖고 닦은 재능의 결과인 이번 작품들은 어르신들의 자랑스러운 흔적이고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라며 “복지관에서만 진행되던 기존과 달리 젊은이들이 많은 혜화역에서 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노인문화를 알려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 송산실버문화센터, 신노년운동페스티벌 열어

2천여 주민 참석...미니올림픽, 다도체험 참가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9월 7일 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에서 노인복지기금마사사업의 일환으로 ‘신노년 문화운동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이번 신노년 문화운동페스티벌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처하는 신 노년문화운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2000여 주민이 함께 참여한 이날 신노년 문화운동페스티벌에서는 가훈서드라기, 페이스페인팅, 노인자살예방상담, 미니올림픽, 프리허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의정부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한마당을 개최해 장애인 체험, 건강부스, 상담, 다도체험, 게임 등



송산실버문화센터는 9월 7일 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에서 노인복지기금마사사업의 일환으로 ‘신노년 문화운동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합창단, 요들, 오카리나 및 부용고등학교 ‘무아지경’, 송현고등학교 ‘심금’, 송산실버문화센터 노래교실, 경기민요, 포크댄스, 실버밴드 등 10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실시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031)852-2595 이은 기자

### “우리 학교 건강 도움으로 출동!”

자양복지관, 우리학교건강 구조대 실시

“친구에게 기쁜 음식을 덜 먹고 아재들이 많이 먹으라고 할 거예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한국암웨이의 후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8월 19·29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코칭 프로그램인 ‘튼튼하게 댔습니다!’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아동들이 학급 내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우리학교 건강 구조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또래 아동에 비해 키가 작거나 왜소한 아동, 과체중인 아동, 편식이 심한 아동 등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아동과 부모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활동지를 제작하는 조별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활동지 제작 후 건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9·29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 아동들이 활동지를 만들어 학급 내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

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학교 내에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활동에 참여한 신OO 아동은 “친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엄마와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도 알게 되었고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02)458-6796 이은 기자

### 철산복지관, 희망백일장 성료

문해(文解) 학습자 250명 참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희은)은 광명시와 함께 9월 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3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희망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광명시 문해교육 9개 기관의 문해 학습자 250명이 참석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했다.

희망백일장은 시립새싹어린이집의 6·

7세 원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만의 필통 만들기 체험, 문해 골든벨 O, X 퀴즈, 공동체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철산복지관은 입상자 19명에게 시상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학습 동기부여를 했다.

철산복지관은 “희망백일장이 배움의 기회가 적어 학습 소외계층이 된 문해 학습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평생학습 실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617-0410 이은 기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와 함께 ‘2013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희망백일장’을 개최했다.

#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9.5 ~ 10.31 까지)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대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영대불교 062-269-2584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